

대학 글쓰기 수준별 수업운영의 가능성*

-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학습성과물 비교를 통한
변별지표 마련의 가능성

이 은 주 (가톨릭관동대)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II. 학습성과물 비교 분석 |
| II. 대학 교양교과에서 수준별 교육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대학 글쓰기(College Writing)는 종합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교양교과이므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학습자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동일한 교재와 교육내용은 학습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학습자들에게 동기 유발을 어렵게 하며, 흥미를 지속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교양 영어나 교양수학에서는 이미 수준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글쓰기 교육에서 과정형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 C 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계 별 교육내용과 수업목표를 어떻게 수행,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 평가 지표에 따라 학습자들의 학습성과물을 분석해 보았다. 학습자 수준별 학습성과의 차이를 알고, 그 변별지점을 밝혀 수

* 이 논문은 2016년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2016-2학기 CKU연구지원사업) 지원을 받았음(과제번호: 201603740001).

준별 수업 운영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였다. 분석집단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대상인 학습성과물은 글쓰기 단계별 수행과제인 주제정하기-구성하기-도입부 쓰기-완성본의 평가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사이에서 변별되는 지점이나 요소가 발견될 것이라는 가설과 달랐다. 주제정하기, 구성하기에서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구성하기에서는 오히려 하위그룹으로 분류되었던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그런데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로써 글쓰기의 역량은 궁극적으로 문장력과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육적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수업운영에서 교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구분되는, 학습자의 학습능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교수자 성찰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긴다.

주제어: 대학글쓰기, 수준별 수업, 학습성과물, 학습동기, 학업효능감,
맥락화, 스토리텔링, 읽기

I. 문제제기

대학 글쓰기(College Writing)는 교양 교육과정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교과목으로, 다양한 교수법과 교육내용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말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 기술적 읽기/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력, 문제해결 능력, 융복합 능력, 통섭 능력 등 종합사고력을 요구하는 대학 글쓰기 교과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준에 맞춘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다른 교과목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가 많고,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¹⁾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학 글쓰기 교육은, 복합 문식력 강조, 논리적·비판적 사고 강조, 자기 발견의 글쓰기, 전공영역별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등 대학마다 특성화 하는 부분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글쓰기 교과목을 I, II 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거나 과목명을 달리한 글쓰기 강좌가 있는 경우도,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심화 단계로 나아가거나 글의 장르를 세분화한 과정²⁾이지, 동일한 교육과정을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달리 운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학과와 상관없이 한 대학 내의 학습자 수학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 1) 김영자, 김원보, 김종훈, 「한국 대학생의 수준별 영어쓰기 모형에 관한 사례연구」,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미래영어영문학회, 2011.
김중희, 「수준별 교양일본어 수업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57, 대한일어일문학회, 2013.
박승실, 「기초과학의 수준별 교육 모형 : 교양수학 교육의 보충반과 튜터링 사례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박찬규,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29, 한국중원언어학회, 2013.
신재한, 「수학과 수준별 문제해결학습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문화연구』16(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0.
이지은, 「수준별 영어 수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연구』71, 언어과학회, 2014.
정덕교, 「교양영어교육에서의 수준별 영어수업 : 한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4(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표용수, 「대학 기초수학 교과목에 대한 수준별 학습지도 방안」, 『수학교육학연구』21(1), 대한수학교육학회, 2011.
하중범, 「수준별 영어읽기 수업에서의 대학생 인식에 관한 연구」, 『신영어영문학』54, 신영어영문학, 2013.
- 2)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화여대의 경우 글쓰기(우리말과 글쓰기)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설정한, 심화된 읽기/쓰기 강좌가 교양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정희모 외, 「글쓰기 분야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258쪽 참조.

하지만 학과별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차이가 크고, 수업운영의 융통성만으로 그 차이를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 일률적인 수업내용은 학습자교수자 모두의 수업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교양교육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교양영어 역시 그 시작은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능률을 극대화하는 등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자의 역량강화와 교수자의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수준별 수업이 필요성과 효과를 논증³⁾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수준을 구분하는 합당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영어의 경우 학기 초에 레벨테스트(진단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의 강제성과 엄밀성을 강화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수업의 양 보다는 질에 치중해야 한다는 방향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대학 글쓰기 교과에서는 수준별 교육에 대한 논의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말 쓰기에 대한 (대학)학습자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렵다. 학습자의 텍스트 문해 능력

-
- 3) 서장국 외, 「지방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언어연구』22권 1호, 한국현대언어학회, 2006.
 정덕교, 「교양영어교육에서의 수준별 영어수업 : 한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4(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최경미, 양우석, 「지방 소재 중위권 대학의 이공계 신입생을 위한 수준별 영어수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 『공학교육연구』14권 2호, 한국공학교육학회, 2011.
- 그러나 수준별 교과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와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조사에서 고급반은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나 기초반 학습자들에게서는 학습동기와 성취감 모두에서 낮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교수자, 학습자 모두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하위권 학습자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연구가 필요함도 역설하고 있다.
- 박찬규,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29, 한국중원언어학회, 2013, 125쪽.
 하종범, 「수준별 영어읽기 수업에서의 대학생 인식에 관한 연구」, 『신영어영문학』 54, 신영어영문학, 2013, 263~272쪽.

이 상이하고,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한 소구와 흥미 역시 차이가 큰 환경에서, 동일한 내용과 교재로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 글쓰기 교과목에 동기 부여가 어렵거나 학습능률이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교과목표 내에서도 학습자 수준별로 어떻게 다른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학습자의 만족도는 물론 수업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까를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우선 그 선수 작업으로 학습자 수준이 변별되는 지점을 가시화 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C 대학교 2016-2학기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교과목을 수강한 상위그룹(국어교육과, 44명)과 하위그룹(스포츠건강관리학과, 40명) 학생들의 학습성과물(수행과제)을 비교분석⁴⁾하여 그 변별 요소를 구체화 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글쓰기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교과 개설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가,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교과목표에 부응하는가, 교수자의 교과 운영 방식-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인가, 교과목표-교과 운영(교수/학습 방법)-평가(시험)의 연계성을 만족시키는가, 학생들 개인전체의 역량(변화)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가 등이 논의된다⁵⁾. 이를 고려한 항목으로 학습성과물을 비교분석한 후 분반별(수준별)로 어떤 특이점(차이점)을 드러내는지 구체화 하고,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학습자 수준에 맞춘 글쓰기 교과목 운영방안이 될 수 있을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대학 교양교과에서 수준별 교육

교육 이론에서 수준별 교육에 대한 비판은, 학습자의 정서에 해를 끼치고, 서열화-차별화를 위한 도구이며, 수업은 다르게 하고 시험을 똑같이 본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낮은 단계의 학생들을 학교 교육에

4) 통계 분석도구는 SAS 9.2를 사용했다.

5) 이은주, 「대학 글쓰기 평가방법과 학습성취도의 관계」, 『대학작문』16호, 대학작문학회, 2016, 194쪽.

서 소외시키고, 사회적 포부나 자아존중감을 훼손하여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⁶⁾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별 교육은 이동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수준별 교육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에서는 한 분반 내에서의 이동이 아닐뿐더러, 실질적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되는 다른 교양교과목의 사례들을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아주대의 경우 교양 수학을 수준별로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과목명을 달리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수학>(원래 들어야 하는 과목은 <수학1>)을 수강하도록 했을 때 학습자, 교수자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이유는 같은 학과 친구들과 수업시간표가 다른 데서 오는 소외감과 열등감, 시간표가 다름에서 오는 전공과목 수강의 차질, 고등학교 내용을 다시 배우는 것에서 유발되는 학습동기 결여가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보완된 방법은, 과목명을 달리 하던 것을 <보충반> <일반반>으로 구분하여, 동일 시간대로 시간표를 배정했다. 대신 보충반은 주당 4.5시간, 테스트: 4회(성적 반영)/ 일반반은 주당 3시간, 테스트: 2회(성적 반영)로 운영하고, 분반 기준은 1학기는 배치교사, 2학기는 직전 학기 동일 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했다. 여기에 튜터링 제도 운영(튜터1-대학원생, 튜터2-보충반 학생)이 만족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보충반 중에서도 하위 10%는 특별 개인 지도와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 태도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수학 성적만 안 좋은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대학생활 전반에 적응력이 떨어짐)⁷⁾을

6) 손지희, 「수준별 교육과정의 본질을 일깨워준 3명의 학자」, 『교육비평』18, 2005. 65~70쪽.

7) 박승설, 「기초과학의 수준별 교육 모형 : 교양수학 교육의 보충반과 튜터링 사례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385~396쪽.

역설하고 있다.

67개의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한 교양영어(회화 중심) 수준별 교육에 대한 연구⁸⁾에서는,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에서는 70% 이상이 동의를 하였으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는 낮게 나왔으며, 특히 하위권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성취감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준별 교육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분반기준과 방법, 수준별 교재 선택, 교수방법과 평가이다.

교양영어 교육에서 수준별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홍익대 사례인데, 상/중으로 구분하여, 하급반을 만들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상반도 상위 10~15%로 최소화 하여 학습자들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는 ‘기본반’, ‘고급반’으로 구분(신입생 레벨 테스트)하여, 우수반(고급반) 편성과 운영에서 차별화된 교육⁹⁾을 하고 있다.

Ⅲ. 학습성과물 비교 분석

1. <과제1: 주제정하기> 분석

글쓰기 교육에서 과정형 모델을 따르고 있는 C 대학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교과는 한 학기 전체를, 주제정하기- 구성하기- 문단완성, 진술방식- 완성본 제출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단계 별 수행과제는 수업내용의

8) 조정순,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교육』57(2), 2002, 365~394쪽.

박찬규,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언어학연구』29, 한국중원언어학회, 2013, 108~109 재인용.

9) 정덕교, 「교양영어교육에서의 수준별 영어수업 : 한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4(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178~193쪽.

하중범, 「수준별 영어읽기 수업에서의 대학생 인식에 관한 연구」, 『신영어영문학』, 54, 신영어영문학, 2013. 251~275쪽.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학습자가 선정한 주제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첫 번째 과제인 <주제정하기>는 ‘새롭게 보는 훈련을 통해 자기 관점을 정립하고, 그것을 주제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차별 수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수행과제가 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새롭게 보기를 했는가/ 주제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참고자료는 적절한가’이다.

<표 1-1> 주제정하기

| group | N | Mean | t 값 | p 값 |
|-------------|----|------|--------|--------|
| 국어교육 | 42 | 4.83 | 2.34** | 0.0219 |
| 스포츠 건강관리 | 35 | 4.60 | | |

(* p< 0.1, ** p< 0.05, *** p< 0.01)

<과제 1> 평가는, 평가항목 수행결과에 따라 5점, 4점, 3점으로 측정하였으며, 국어교육과의 평균값은 4.83, 스포츠건강관리학과의 평균값은 4.60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5%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측정값의 차이를 드러내는 양적 분석만으로는 이 논문에서 기대했던 두 집단 간의 변별지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변별지점을 가시화 하기 위해서는 학습성과물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새롭게 보기와 주제문장 만들기’ 수행 수준을 볼 수 있는 대표사례 분석을 하였다. 학생 변인을 줄이기 위해 두 집단에서 각각 무작위로 2개를 선택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주제문장

| 국어교육과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
| ①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능동적인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② 조별 과제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료평가 제도와 직무배정이 필요하다. | ① 청소년기의 여가(체육) 활동은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② C 대학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올림픽 후에도 잘 사용될 것이다. |

1차 수행과제 ‘주제정하기’에서는 논증할 수 있는 명제를 주제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리적인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입장(주장)을 논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주장하는 바에서는 기존에 있던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서 차별화 되는 생각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교육과의 사례 ①②는 모두 당위명제에 해당하는데, 이 집단의 많은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주제문을 제출했다. 당위를 논증할 수 있는가 혹은 논증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당위적인 문장으로 만들어진 주제문은 이 교과목에서 중요하게 설명한 ‘새롭게 보기’를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비교했을 때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사례가 글쓴이의 주장이나 개성이 더 잘 드러나는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건강관리학과 ②번 예는,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 후 경기장 관리가 잘된 예, 잘못된 사례를 모두 수집하여 비교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찬반 논의를 참고하면서 C 대학교 경기장 환경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므로 관심분야를 잘 살린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두 집단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어교육과의 학습성과물이 보여주는 수업목표 달성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나는 것이다. 양적 분석에서 나타난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의미를, 수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수업태도와 몰입정도라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

기 위해, 두 집단 각각에서 학습자의 직전 학기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과제 1>에 대한 양적 접근, 질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표 1-3> 분반 별 평균평점 구간별 평가결과

| | 국어교육과 (44명)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40명) |
|-------------------------------|--------------|-----------------|
| 미제출자 | 2명 | 5명 |
| 전체평균 | 4.8점 (5점 만점) | 4.6점 (5점 만점) |
| 상위 15% (평점 4.0 이상) | 5점 | 5점 |
| 하위 25% (평점 3.0 미만) | 4.5점 | 4점 |
| 중간층 (평점 3.0~3.9) | 4.8점 | 4.7점 |
| 새롭게 보기를 했는가 | 중 | 중 상 |
| 주제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 중 상 | 중 하 |
| 참고자료는 적절한가 | 중 | 중 |

두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표나게 드러나는 곳은 하위 구간이다. 직전 학기 평균평점 3.0(4.5점 만점) 미만 구간의 평균점수 차이가 0.5점으로, 상위 구간 0점, 중간 구간 0.1점에 비해 크게 벌어지고 있다. 동일 집단 내에서도 국어교육과는 상/ 중/ 하의 평균점수 차이가 5/ 4.8/ 4.5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스포츠건강관리학과는 5/ 4.7/ 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과 전체의 질적 평가를 비교했을 때, 하위그룹으로 스포츠 관련 학과를 설정하면서 예측했던, 국어교육과 학습자들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비교 우위에 있을 거라는 가설은 상당 부분 선입견임이 드러났다.

<과제 1> 분석만을 놓고 볼 때 수업운영에서 염두에 둘 부분은, 스포츠

관련 학과 학습자 전체의 수학적능력이 아니라, 분반 별 학습자 간의 심한 수준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하위 구간의 학습자 대부분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초·중등교육 기간에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습자 간의 격차를 수업 운영의 융통성만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체육 관련 학습자의 학습권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2. <과제2: 구성하기> 분석

글쓰기 과정형 모델에서 두 번째 수행과제 <구성하기>는 ‘주제에 맞는 내용을 항목화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주차별 수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주제에 맞게 항목화 했는가/ 논리적 흐름을 만들었는가/ 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표 2-1> 구성하기

| group | N | Mean | t 값 | P 값 |
|-------------|----|------|--------|--------|
| 국어교육 | 41 | 4.37 | -0.66* | 0.5102 |
| 스포츠 건강관리 | 34 | 4.47 | | |

(* p< 0.1, ** p< 0.05, *** p< 0.01)

<과제2> 분석 결과 두 집단은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0.1)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건강관리학과가 4.47로, 국어교육과 4.3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성하기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분반 별로, 학습자 평균평점 구간으로 살펴본 과제평가 결과이다.

<표 2-2> 분반 별, 평균평점 구간별 평가결과

| | 국어교육과 (44명)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40명) |
|-------------------------------------|---------------|-----------------|
| 미제출자 | 2명 | 4명 |
| 전체평균 | 4.37점 (5점 만점) | 4.47점 (5점 만점) |
| 상위 15% (평균 4.0 이상) | 4.5점 | 5점 |
| 하위 25% (평균 3.0 미만) | 4.3점 | 3.4점 |
| 중간층 (평균 3.0~3.9) | 4.2점 | 4.5점 |
| 주제에 맞게 항목화 했는가 | 중 | 중 |
| 논리적 흐름을 만들었는가 | 중하 | 중 |
| 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중하 | 중 |

이 결과를 보면 <구성하기> 학습성과물에서는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평가 결과가 평가기준 3항목 모두에서 국어교육과보다 낮다. 평균평점도 상위 구간, 중간구간에서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국어교육과보다 높다. 차이가 심하게 나는 구간은 평균평점 하위 구간으로 이 부분은 <과제1> 분석결과의 내용과 중복된다. <과제2: 구성하기>는 글을 쓰는 과정 중 논리력과 종합사고력, 자료활용 능력 등이 가장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단계로, <표 2-2>가 보여주는 결과는 두 집단을 상위그룹, 하위그룹으로 설정했던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되묻게 한다. 예측과 달리, 오히려 두 집단 간에 변별되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제2>분석 내용의 특이사항이다.

두 집단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도 앞서 분석한 <표 1-2>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2-3> 분반 별 대표 사례 질적 분석- 국어교육과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나요?

혼란만 주는 잦은 교육과정 개정을 삼가야 한다.

(=서론, 머리말)
 (주제선정이유): 잦은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대학입시에 학생을 겪고 있다.
 (참고교육연구사와 참고육신) 전교조 설문조사... <중등교사 77%, 교육과정 전면개정...>
 문과 이과 통합으로 인해 학생들이 당황해하고 있음.
 - '기부로 수능'에... 수학 높은 이과생, 영어 낮은 문과생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교사들도 혼란스러워 함

결론에서
 언론성은 논증해야 함
 = 이유 들면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74%의 찬성률에 대한 입시 문제
 개정된 내용
 변화의 이유
 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필요성

결론: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대학입시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잦은 교육과정 개정을 삼가고 확립된 교육과정 하에 대학입시 제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과정 변화, 대학입시 제도를 반영한 시정방안 등이 불선되어야 함

본(사례분석) <EBS뉴스 - "수능은 그대로인데...아자 패지 가능할까?" <EBS뉴스 문·이과 통합하려면 대입제도 손봐야"> <조선일보 - '기부로 수능'에... 수학 높은 영어 낮은 문과생 > <KBS 뉴스 - 교육과정 8년 새 4번 개편... "부담-혼란">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변경사
 교육과정을 자주 개정할 이유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교육과정 연계되지 않은 입시제도
 1) 문·이과 통합에 의한 대학입시제도 혼란
 2) 사교육 증가
 학생들 및 교사들의 혼란
 1) newsl뉴스-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수학 학습부담 경감 정도 미비" (2015.07.01.)
 2) 한국교육신문 - 입시 따로, 교육과정 따로?

문: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대학입시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부담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하며 잦은 교육과정 개정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KBS 뉴스 - 교육과정 8년 새 4번 개편... "부담-혼란"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id=2928901>

→ 함의의도

성명용/자료 수집, 재배치됨.
 자기 관점(분석)이 들어간
 곳이 없음.

<표 2-3> 사례는 모두 '중'으로 평가 받은 개요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표1-2: 주제문>의 특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당위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자기 주장을 담은 것이 주제문이라고 수업을 한 후, 주제점 검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것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과 대표 사례는 여전히 당위적이고 상식적인 주제문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요에서 논증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당위 명제들은, 사례에서 보듯이 거대 담론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잦은 교육과정 개정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을 주제문으로 할 경우, 논증을 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논증할 필

요가 없는 주제문이 되고 만다. 문제는 학습자가 자신의 주제문이 논증 가능
한지 어떤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요는 관련 참고
문헌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설명문이 될 수밖에 없다. 국어교육과 <과제2>
의 60% 가량이 이와 유사한 유형의 설명문 개요를 제출했다.

<표 2-3> 분반 별 대표 사례 질적 분석-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 |
|--|--|
| <p>문장</p> <p>도핑의 시각</p> <p>1. 도입부(=서론, 머리말)</p> <p>* 분석의식(주제선정 이유): 매 해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도핑, 대중들이 도핑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 우려됨</p> <p>* 글의 목적: 실력향상을 위해서 보다 기록향상에 더 신경 씌으로써, 도핑이라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암묵히 실행하는 선수들이 증가하고 있다.</p> <p>* 분석대상(사례분석): <광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미지광고>, <영화: 챔피언 프로그램>, <영화: 자전기영화></p> <p>유자</p> <p>개요</p> <p>2. 약물로 기록을 사는 선수들, 어디에 유용한가: 기록은 가격이다?</p> <p>1) 은퇴 후 코치생활 - 학생의 성적을 보고 하듯이 선수는 기록을 보고 뽑는다</p> <p>2) 입상 - 선수생활 때 입상은 명예도 있지만 돈이 크기 때문에 도핑을 한다.</p> <p>3. 도핑에 대한 스포츠협회의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p> <p>1) 도핑테스트 거부에 연루되면 4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p> <p>2) 도핑의 종류에 따라 처벌정도 각각 다 다르다.</p> <p>4. 도핑의 부작용: 약물투여로 인한 신체의 불균형</p> | <p>한편의 시각에서 바라본</p> <p>어제에서 (배) 이관유역자가 생각하는 것인가요?</p> <p>타국에서는</p> <p>생각하여 보기.</p> <p>본문에 나와야 합니다.</p> <p>표어와 특성이</p> <p>상호관계로</p> |
|--|--|

반면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습자의 개요는 문제의식의 독창성도 엿보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 드러난다. 운동선수들이 도핑이나쁜 것인줄 알면서도 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이 불법적 행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어떤 기류(사회적 분위기)가 있음을 밝혀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경험에서 찾아낸 귀중한 문제의식이자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본론 구성이 글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분석대상을 설정해 놓은 것을 보면 자기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자기 글'

이 되는지도 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에서는 글쓰는 사람의 관점(주장, 입장)이라는 표현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나는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수행과제물의 결과 분석만 놓고 보면, 국어교육과 학습자들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거나, 일반론(또는 상식)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혹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습자들은 생각한 것을 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능력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지만,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나의 생각’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과제3: 도입부 쓰기> 분석

글쓰기 과정에서 실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는 ‘도입부 쓰기’의 평가 결과는 매우 유의한 값($p < 0.01$)을 나타낸다. 평균값을 보면 국어교육과가 4.90으로 4.60을 보이는 스포츠건강관리학과와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

<표 3-1> 도입부 쓰기

| group | N | Mean | t 값 | P 값 |
|-------------|----|------|---------|--------|
| 국어교육 | 41 | 4.90 | 2.66*** | 0.0095 |
| 스포츠 건강관리 | 35 | 4.60 | | |

(* $p < 0.1$, ** $p < 0.05$, *** $p < 0.01$)

<표 3-1>이 보여주는 유의한 차이는 <표 3-2>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표 3-2> 도입부 쓰기 사례 분석

한남총과 김치녀 (국어교육과)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아는가? 이는 여성에게 혐오를 느끼던 한 남성이 무고한 여대생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이 비극은 단시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자신들의 인권이 이토록 바닥에 있음을 깨닫고 분노한 여성들이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건의 가해자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일부 한국 남성들이 곧 여성들을 비난했고, 이에 남성 혐오를 느낀 일부 한국 여성들 또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 사회에서 이들은 커뮤니티에 모여 양성 혐오의 의미가 짙은 통신 언어를 창조해 서로를 헐뜯었다. 이 글에서는 양성 혐오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와 ‘메갈리아’에서 사용되는 양성 혐오 언어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학업의 필요성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이 엘리트 선수들 위주로 투자해 오면서 국내 청소년(초, 중, 고) 운동선수들의 선수생활 이후의 미래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게 되어 왔다. 많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학업을 결손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 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학업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주변국(미국)의 청소년 교육 상황과 미국의 청소년 운동선수들에 대한 교육관이 어떠한지 알아보면서 미국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두 사례 모두 도입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즉 자신의 문제의식 혹은 글의 목

적(주제, 방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차이점은, 문단(도입부)의 내용이 얼마나 조리 있게 문장으로 잘 구성되고 있는가인데, 글의 맥락을 만든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생각의 고리를 문장으로 연결해 나가는 논리적 사고와 관련되며, 글 전체의 주제를 염두에 두고 문장을 의도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논리적 글쓰기를 하는 과정 역시 글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각 부분(문장)을 그 전체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주제정하기, 구성하기 학습성과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두 집단이었지만, 문장을 만들고 연결하여 글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스포츠건강관리학과와 미비점이 드러난다. 문장호응 등 감각적으로 익숙해져야 할 어법, 문장과 문장의 연결, 가독력을 높일 수 있는 문장 길이 등에 대한 세심한 수정 작업이 요구된다.

주제정하기, 구성하기에 비해 도입부 쓰기에서 국어교육과 학습성과물의 평가가 좋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소설 등을 많이 읽었고 또 텍스트 읽기를 즐겨하는 학습자들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수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나 강조점을 활용하는 능력에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문장력, 스토리텔링 능력의 발현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글의 수준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장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은 짧은 시간에 변화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읽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표 3-1>의 유의 값은 평균평점 구간별 평가결과를 정리한 <표 3-3>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어교육과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모두 상위그룹은 평균값이 같고, 하위그룹 역시 평균값의 차이는 0.2점으로, 중간그룹의 0.5점 차이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값의 차이는 물론, 국어교육과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전체의 주제정하기, 구성하기의 평균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글쓰기 능력의 차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결국 문

장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대학 학습자들의 글쓰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3-3> 분반 별 평균평점 구간 별 평가결과

| | 국어교육과 (44명)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40명) |
|-------------------------------|--------------|-----------------|
| 미제출자 | 0 명 | 1 명 |
| 전체평균 | 4.9점 (5점 만점) | 4.6점 (5점 만점) |
| 상위 15% (평점 4.0 이상) | 5점 | 5점 |
| 하위 25% (평점 3.0 미만) | 4.5점 | 4.3점 |
| 중간층 (평점 3.0~3.9) | 5점 | 4.5점 |
| 도입부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상 | 상 |
| 글의 맥락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 상 | 중 |
| 문장을 어법에 맞게 만들고 있는가 | 상 | 중 |

도입부 쓰기의 평가 결과는 최종 완성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은 최종 완성본의 평가 결과를 통계화 해본 것이다. 문장력, 문단 구성력, 문단과 문단의 연결, 시작-중간-마무리 등 글 전체의 맥락을 평가하게 되는 완성본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그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최종 완성본(15점 만점)

| group | N | Mean | t 값 | P 값 |
|-------------|----|-------|---------|--------|
| 국어교육 | 42 | 13.86 | 3.25*** | 0.0017 |
| 스포츠 건강관리 | 33 | 12.51 | | |

(* p< 0.1, ** p< 0.05, *** p< 0.01)

IV. 결론

대학 글쓰기 교과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교수자가 수업운영에서 느끼는 어려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같은 수업내용과 교재로 수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분반 별로 학습자의 반응과 집중도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자는 그 이유를 학습자의 수학능력 수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변별지점(주차 별) 수업목표 실행의 준거가 되는 수행과제 평가항목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 국어교육과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
| 주 제 정 하 기 | ①독창성, 새롭게 보기- 하 ②참여율, 동기부여, 흥미지속 - 중 ③특징: 당위적, 추상적 주제문 많음, '자기 생각'과 '일반론' 구분을 잘 못함 ④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필요성, 중요성을 수행과제로 수월하게 이행하지 못함 | ①독창성, 새롭게 보기- 중 ②참여율, 동기부여, 흥미지속 - 중 ③특징: 역동적, 관심분야가 다양, 문장력이 부족하고,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드러내는) 데서 오류가 많이 발생. 즉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의 불일치가 눈에 띈다 |

| | | |
|-----------------------|---|---|
| 구 성 하 기 | ①구체화 능력이 떨어짐-추상적이고 당위적인 구성,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해석됨 ②자료 읽기를 능동적으로 하지 않음 ③주제 바꾸는 사례가 많음 | ①구체화 능력 돋보임 ②경험을 글로 옮기는 능력 돋보임: 참고문헌을 활용하고 응용하여, 자기 경험과 연결하는 능력은 떨어짐. 그러나 성실성은 돋보임 |
| 도 입 부 쓰 기 | ①맥락을 만드는 능력, 문식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제 문장을 만들고, 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수월하게 수행 ②양을 늘리는 것은 수월함 - 전체적으로 정해진 분량보다 많이 쓰는 경향 | ①기본 문장력 훈련이 필요함(주술 관계, 문장 호응관계 등) ②맥락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함 ⇒독서를 습관화 해야 나아질 수 있는 부분 |

C 대학교에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표본으로 선정한 국어교육과와 스포츠건강관리학과와 학습성과물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학과별 수업운영에서 느꼈던 심정적, 물리적 차이는 학과 전체의 글쓰기 수행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상위 15%에서는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습자가 더 우수하게 평가된 것도 있었다. 같은 분반 내에서의 수준차이가 더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이 그 학과의 수업분위기, 학습자 태도, 학습자 학업효능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

과정형 모델을 적용한 교재와 수업운영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들은 주제정하기-구성하기-도입부 쓰기-완성본에서 마련되었는데, 그 결과는 가설과 달리, 주제정하기는 유의 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고, 구성하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p < 0.1$)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실제 문장을 만들고, 맥락화 하는 과정이다. 주제정하기, 구성하기 방식을 익히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내용으로 만드는 것은 문장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다.

스토리텔링은 최근 문화콘텐츠 사업과 맞물려 디지털 콘텐츠를 연구, 생산하는 분야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그 이전부터 교수자 수업 기술(교수법)이나 학습자 수행을 통한 교육적 활용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¹⁰⁾ 되어 온 영역이기도 하다. 맥락 의존적인 성격을 띠는 내러티브 사고는 경험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¹¹⁾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교육계 쪽 연구가 활발하다. 그것은 글쓰기나 국어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수학, 영어, 역사, 사회는 물론 디자인, 광고, 예능 등 모든 영역에서 두루 스토리텔링에 주목하고 있다.

담화상의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스토리텔링 수행 능력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스토리텔링은 단계적으로 향상되는 보편적인 언어능력이지만 상급 수준의 읽기와 쓰기 능력은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능력 이후에 발달된다고 본다.¹²⁾ 즉 적절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글쓰기 학습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학업성취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능력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스토리텔링 능력인 것이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과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수업기술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기초 단계에서는 ‘개인의 경험(사진)으로 말하기, 주어진 그림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야기로 만들기, 제시된 첫 문장에서 이야기 창작하기’ 등이 많이 활용되는데, 2017-1학기 필자는 이 중에서

-
- 10) 박명숙, 「융합적 <사고와 표현>의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교육문화연구』 23(3), 2017; 박인기 외, 『스토리텔링과 수업기술』, 사회평론, 2013; 이지영, 「스토리텔링 수업기술의 국어수업 적용 연구」, 『청람어문교육』 45, 청람어문학회, 2012; 최성희, 「사회과 신문활용 수업에서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17(1), 2011.
- 11) 박진, 「스토리텔링 연구의 동향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가능성」,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542쪽.
 강문숙, 김석우,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사고개발』 8(2), 대한사고개발학회, 2012, 86쪽.
- 12) 김나희, 신동일, 「스토리텔링 수행능력의 이해: 담화상의 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영어학』 8(1), 한국영어학회, 2008, 53; 56쪽.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응용하여 수업에 도입하였다. ‘어머니와 아이’라는 동일한 소재로 어떻게 다양한 주제의 드러냄이 가능한지를 아래 세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그 다음 소규모(45명)로 팀을 구성하고, 팀원의 의견을 모아 그림 하나를 선택한 후,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협업으로 기술해 보도록 했다.



어머니와 아이 (피카소)



아이를 안은 노동자 임신부
(오토 디스)



죽은 아이를 안고 우는 어머니
(케테 슈미트 콜비츠)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수업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시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으며, 같은 그림을 택한 팀 별로 상호 비교와 평가가 가능했다는 것, 더 잘 만든 이야기(스토리텔링)는 전체 주제와 관련된 문장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학습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 교육적 효용성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시에 스토리텔링 능력이 향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장들 간의 연결 속에서 중심 주제가 논리적으로 유지되는 일관성의 정교함¹³⁾이 수업의 목표와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해주면,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업운영의 어려움에서 시작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글쓰기 수행 결과에서 눈에 띄게 변별되는 지점이 발견될 것이라는 가설은 교수자의 선입견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업운영의 어려움은 분반 별 학습자 전체의 역량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교수자의 선입견과 학습자의 글쓰기 교과에 대한 학습동기 부족, 한 분반 내 학습자 수준의 격차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학 글쓰기 교육이 각종 보고서나 실용문 작성법 등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교과목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떤 식으로 학습내용의 일부로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은 물론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나 참여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3) 김나희, 신동일, 위의 글, 54쪽.

참고문헌

- 강문숙, 김석우,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사고개발』8(2), 2012.
- 김나희, 신동일, 「스토리텔링 수행능력의 이해: 담화상의 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영어학』8(1), 한국영어학회, 2008.
- 김소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 탐색 : 다층자료 분석모형 이용」, 『아시아교육연구』12(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 김영자, 김원보, 김중훈, 「한국 대학생의 수준별 영어쓰기 모형에 관한 사례 연구」,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미래영어영문학회, 2011.
- 김종희, 「수준별 교양일본어 수업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57, 대한일어일문학회, 2013.
- 박성익, 김미경,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별 및 문제해결학습단계별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행태 분석」, 『아시아교육연구』6(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5.
- 박승설, 「기초과학의 수준별 교육 모형 : 교양수학 교육의 보충반과 튜터링 사례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박진, 「스토리텔링 연구의 동향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가능성」, 『어문학』122, 한국어문학회, 2013.
- 박찬규,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29, 한국중원언어학회, 2013.
- 서장국 외, 「지방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언어연구』22(1), 한국현대언어학회, 2006.
- 손지희, 「수준별 교육과정의 본질을 일깨워준 3명의 학자」, 『교육비평』18, 2005.
- 신재한, 「수학과 수준별 문제해결학습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 『교육문화연구』16(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0.
- 이지영, 「스토리텔링 수업기술의 국어수업 적용 연구」, 『청람어문교육』45집, 청람어문학회, 2012.
- 이지은, 「수준별 영어 수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연구』71, 언어과학회, 2014.
- 정덕교, 「교양영어교육에서의 수준별 영어수업 : 한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4(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 정태범, 류희찬, 조완영, 「수업아이디어 : 자료 중심 교수-학습 운영 모형에 근거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학교수학』2(2), 대한수학교육학회, 2000.
- 최호성, 「수준별 수업에서의 상위 성취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압축전략」, 『교육과정연구』20(4), 한국교육과정학회, 2002.
- 표용수, 「대학 기초수학 교과목에 대한 수준별 학습지도 방안」, 『수학교육학연구』21(1), 대한수학교육학회, 2011.
- 하종범, 「수준별 영어읽기 수업에서의 대학생 인식에 관한 연구」, 『신영어영문학』54, 신영어영문학, 2013.

【Abstracts】

Possibility to Manage a Level-Differentiated Curriculum for College Writing

- Possibility to Find the Discrimination Index by Comparing the Learning Achievements of Students in Upper and Lower Groups

Lee Eun-ju

This study began with the awareness that for college writing, a liberal art that requires the ability to think comprehensively, learners' level needs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structing educational content. The reason is that using the same teaching materials and content is likely to make it difficult to arouse motivation and maintain interest of learners who display a large difference in terms of learning ability. And college English and college mathematics courses have already adopted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and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its effectiveness has been prov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learners at C University, which had adopted a process-type model in writing education. And the learners' learning achievem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bility assessment index in order to assess learners' performances with the education content and learners' achievement of class objectives at the each stage. The analysis was intended to find differences in learning achievements between students from different levels and discover a discriminant point,

thus predicting the possibility to manage a level-differentiated class. Analysis groups were classified into the upper group and the lower group; their learning achievements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 assessment results values of performance tasks at each stage of writing process such as selecting a subject, structuring, writing the introduction, and final version.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did not correspond with the hypothesis that a discriminant point or element would be discovered between upper and lower groups. No big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selecting a subject and structuring, and the lower group even got a higher average value in structuring. However, at a stage of writing sentences, there was an apparent different between upper and lower groups. Consequently, it confirmed that the ability to write is ultimately about writing sentences and storytelling. And these competencies can be developed only through routinized reading (books). It has remained a problem how to relate reading to the class curriculum for college writing education. And instructors need to deliberate on why they think the difficulties of managing a class originate from the difference in scholastic ability between upper and lower groups.

Key words : college writing, level-differentiated class, storytelling learning achievements,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efficacy, contextualization, reading

이 논문은 2017년 5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